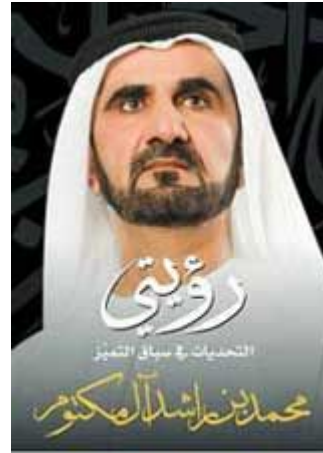


위대한 지도자는 말하는게 다르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멋있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두바이의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UAE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를 두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대충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지도자의 사전(辭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 보십시오.” “만일 마차가 정치라면, 경제는 말입니다. 말로 하여금 마차를 끌게 해야지 그 반대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달 30 일 두바이 도로공사를 방문해 신속한 도로 건설을 지시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지도자(왼쪽)와 최근에 아랍어로 나온 그의 자서전 표지(오른쪽). 영문으로 곧 번역되어 나올 예정인데, 영문 제목은 *My Vision - Challenges in the Race for Excellence.*>

오늘날 두바이의 천지개벽을 주도하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 지도자는 탁월한 통찰력과 상상력과 실천력으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말에서부터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1995 년 왕세자로 지명되자마자 사막을 신천지로 바꿀 21 세기 비전을 발표한뒤 “전 속력으로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몇년만 파내면 고갈될 석유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석유 이외에서 돈을 벌자. 그것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벌자”고 국민을 독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말로 먹고 삽니다. 물론 교언영색(巧言令色)이나 감언이설(甘言利說)이나 허장성세(虛張成勢)는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최악의 사례는 말도 부정적으로 하고 실천력도 없는 지도자입니다. 반대로 국민에게 말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까지 병행하면 가장 좋은 지도자이겠지요.

유능한 지도자가 말하는 원칙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1)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지 인정.)
- 2)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는다.(사소한 실수나 잘못도 모두 지도자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나 기업체에서는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부하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번듯이 지도자급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 3) 적절한 때 적절한 비전(vision)을 제시한다.
- 4)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5) 직원에게 긴장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줄 수 있어야 한다.(지도자는 부드러워야 하지만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는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는 절대군주이면서도 “내 의견에 동의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날 존경하지 않는다. 나더러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나와 국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아부다비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반대자의 발언에 대해 저렇게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의 말은 생기가 넘치고 정중합니다. "좀~뒤편 어떤때?"라는 식으로, 몸은 어른이지만 속에는 미숙한 어린아이 인격이 그대로 살아 꿈틀거리는 식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아냥이나 푸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희망과 건설의 의지만 녹아 있지요.

셰이크 모하메드 지도자는 늘 “우리 국민은‘1+1=2’가 아니라 ‘1+1=11’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그는 평생 국민을 걱정시키는 내용이나, 기업의 자유와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셰이크 모하메드에 대한 국민의 신임과 존경은 절대적입니다. 그가 입을 열면 명언(名言)이고 슬로건이 됩니다.

그는 몇년전 알 사다라는 잡지와 만나 “누구든 10년앞에 무엇이 벌어질지 예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가지는 말하겠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두바이는 지금보다 2배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기업에 좋은 것이 두바이에도 좋은 것이다.”“두바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기적은 내 계획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도 빨리 보고 싶다.” 그의 입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과 너무 가깝다는 일부 아랍국가의 지적에 “세계 최대 강대국과 맞서 잘된 나라가 없다”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무슨 방법을 가리느냐”고 반문했습니다.(갑자기 "반미(反美) 좀 하면 어때?"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면서 아랍전략포럼에 참가해서는 오히려 “아랍 동지들께 고한다. 당신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변화를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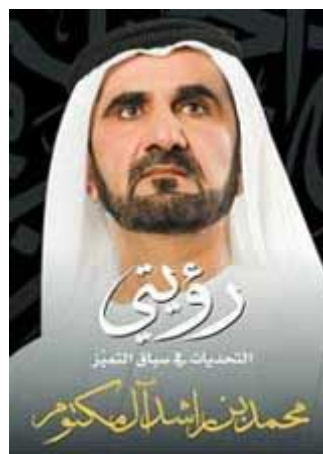
..... 사막의 땅 두바이를 상전벽해의 신기루로 바꾸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와 비견되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偉大なリーダーは言うことが違う

いくら考えてまた思っても格好よい国家のリーダーです。

ドバイのリーダーであるシェイクモハマド(UAE Vic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Ruler of Dubai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のことを言います。

彼の言葉は大まかにこのように始まります。“不可能と言う単語はリーダーの辞書には入っていないです。私たちがもう成したことを見て下さい。私たちが成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見て下さい。”“万が一馬車が政治なら経済は馬です。馬に馬車をひくよう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その反対は理にかなっていないです。”



＜先月 30 日ドバイ道路公社を訪問して迅速な道路建設を指示しているシェイクモハマドリーダー（左側）と最近アラビア語で出た彼の自叙伝表紙（右側）。英文で直ちに翻訳されて出る予定なので英文の題目は *My Vision – Challenges in the Race for Excellence.*>

最近のドバイの天地開闢を主導しているシェイクモハマドリーダーは卓越な洞察力と想像力と実践力で有名だが何より先に言葉から国民を感動させました。

彼は 1995 年皇太子に指名されると砂漠を新天地に変える 21 世紀ビジョンを発表した後“全速力で走る事だけ残った”と宣言しました。当時彼は“何年間掘りだせば枯渇する石油だけ信じていられない。石油以外でお金を儲けよう。それも迅速で画期的に儲けよう”と国民を督励しました。

そうです。リーダーは言葉を食べて暮らします。勿論、巧言令色や甘言利説や虚張成勢は直ぐにばれてしまいます。最悪の事例は言葉も否定的にして実践力もないリーダーです。反対に国民に言葉でビジョンを提示して実践まで並行すれば一番良いリーダーであろう。

有能なリーダーが言う原則をそれなりに整理して見ればこのようです。

- 1) 否定的で敗北主義的な発言は絶対に言わない。(本音はそうであっても。)
- 2) 他人に責任を回さないで言い訳をしない。(ちょっとした間違いや過ちも皆リーダー自分のせいにする。我が国の公職社会や企業体ではどんな問題でも発生すれば部下職員や他人に責任を問って自分はドジョウのように抜けようとする人々が指導の席に居座っている場合が多い。)
- 3) 適切な時に適切なビジョン(vision)を提示する。
- 4) 寛容と包容の精神を基礎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5) 組織員に緊張感と所属感を同時に与えるべきである。(リーダーは柔らか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権威主義'ではない'権威'は持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彼は絶対君主ながらも“私の意見に同意ばかりする人が好きではない。そんな人は私を尊敬しない。私に 間違っただと指摘する人を愛する。本当に私と国家を心配するからだ”とアブダビTVとのインタビューで明らかにしました。以外でした。

反対者の発言に対してあのように慣用的で包容的な態度を取る姿は感動的です。

彼の言葉は生気があふれて丁寧です。“ちょっと何をするかどうか？”というふうに身は大人だが中には青臭い子供人格がそのまま住んでのたくる式の発言は捜してみ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皮肉や泣き言も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ただ希望と建設の意志だけとけていますね。

シェイクモハマドリーダーはいつも“我が国民は 1+1=2”ではなく“1+1=11”を作ろう”と叫びました。彼は一生国民を心配させる内容や企業の自由と経済発展に逆らう言葉は言わないと何回も公言しました。

それでシェイクモハマドに対する国民の信任と尊敬は絶対的です。彼が口を割れば名言でスローガンになります。

彼は何年前アルサダという雑誌と会って“誰でも 10 年後に何が起るか予言することは不可能だが一つは言う。これから 3 年以内にドバイは今より 2 倍はもっと富裕になるでしょう”と宣言しました。その予言はそのまま成し遂げました。

“企業に良いことがドバイにも良いのだ。”“ドバイで今起る奇蹟は私の計画の 10%に過ぎなくて残りも早く見たい。”彼の口には迷いがないです。

韓国通信 2008年8月 第1週

アメリカととても近いという一部アラブ国家の指摘に“世界最大強大国と対立して良くなった国がない”と“国を富強するようにするのに何とか方法を選び分けるのか”と聞き返しました。(急に“反米ちょっとすればどう?”という言葉が思い出しますね) それとともにアラブ戦略フォーラムに参加してはむしろ“アラブ同志らに告げる。あなたたちが変わらなかったらあなたたちは変化にあうようになる”と警告したりしました。

..... 砂漠の地ドバイを桑田碧海の蜃気楼に変えている偉大なリーダーシェイクモハマドと比肩されて今日の私たちの状況がちょっと息苦しいのみです。